

우리의 단결

결단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암울과 고통으로 얼룩진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영원히 씻어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소명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새롭게 전개될 국민적 여망인 문민정치의 주체는 바로 우리인 것을 확인하며 오늘 역사적인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천 결의를 한 “우리들의 영원한 벗이오 민권투사의 희망인 **노무현** 기수”를 다가오는 4월 26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우리들의 굳은 신념과 결의를 내·외에 과시하고 그 필승의 대행진을 힘차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군부독재정권 종식을 이룩하지 못한점에 깊이 반성하며 다가오는 4월 26일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혁명이 바로 정권교체의 기틀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말살하고 모든 권력과 금력 및 반역사적 만행을 자행한 5공화국과 6공화국은 사람만 바꾸어 놓은 동질적 군부독재 정권으로 단정하고 6월 항쟁의 국민적 정신을 살려 기필코 우리 손으로 이들을 국민앞에 굴복시킬 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 우리는 분열된 야당임에도 아직도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적 정당으로 승화시킬 것이며 군부독재의 강력한 견제세력으로서 민주성업을 이룩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88년 4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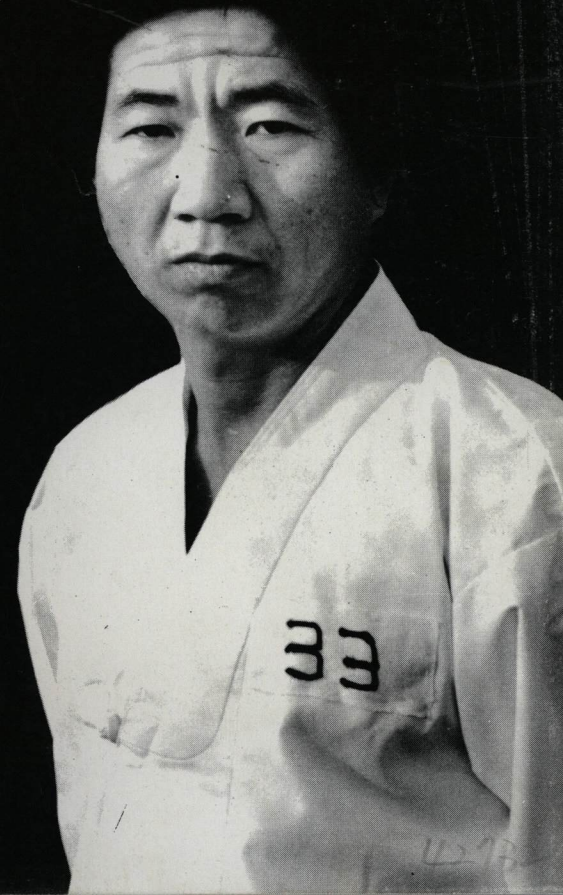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지구당 당원 일동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창당대회

일시 : 1988년 4월 9일 (토)
오후 2시

장소 : 한마당회관
(초량 중앙회관 뒤)



6월항쟁의 아전사령관
부산의 자부심

노무현

전통야당의 도시인 부산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이 63%의 득표를 하고도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어제의 독재정권의 주역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민주정치의 새인물인양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울분의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여러분!

우리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 분열되어 있는 야당을 통합하여 독재정권의 뿌리인 민정당의 독주를 막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의 새날을 열어야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은 소속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국민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온갖 회유와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 이합집산이 아닌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 일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모든 민주세력이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저 빛나는 6월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자리에 서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리를 위하여 전진합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1988년 4월 9일

“**부산에서 ‘신바람나는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

■ 약력 ■

- 경남 김해군 진영 출생('46)
- 부산상고 졸업('66)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75)
-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77)
-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78)
- 부림사건의 변론 이후 학생, 노동, 인권 사건 등 변론('81 이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발기인 및 상임위원장('85)
-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87~'88)
- 故 박종철 및 이한열 추모대회 집행위원장('87)
- 6·10 시만대행진 집행위원장('87)
- 대우조선 이석규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87)
- 11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 당함('87)
- 민주쟁취국민운동 공청선거감시 부산본부장('87)
- 노동법률상담소 소장(현재)
- 현재 박종철군 추모대회, 6월항쟁, 대우사건 등과 관련 5개의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 중.

창당대회식순

1. 당 기 입 장
2. 국 민 의 례
3. 성 원 보 고
4. 경 과 보 고
5. 대 회 사
6. 임시 의장 선출
7. 공 천 자 추 천
8. 공천 수락 연설
9. 내 빈 축 사
10. 임 원 선 출
11. 위원장 당선 인사
12. 집행부구성 및 중앙
과전 대의원 선출
13. 위 임 사 항
14. 기 타 사 항
15. 결 의 문 채 택
16. 만 세 삼 창

